

出版물의 입체화와 漢字

李應百

서울대 名譽教授 · 국어학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에는 한글과 漢字, 로마자, 아라비아 數字가 있다. 그중 뒤의 두 가지는 위나 字數가 적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글과 漢字다.

한글은 15세기(1443)에 朝鮮朝 世宗大王이 창제한 國字로, 세계의 어느 나라 말이고 發話音을 가장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음운이 풍부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돼 있는 表音文字다.

漢字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명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아주 늦추 잡아도 漢武帝가 한강 이북에 四郡을 설치한 元封 3년(B.C.108)을 더 내려올 수는 없다고 본다. 漢字는 우리에게 문자가 없었던 시기는 물론, 訓民正音 곧 한글이 발명된 뒤에도 계속 표기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문화를 급속도로 提高, 발전시킨 공이 큰 表意文字다. 그리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결정체인 허다 문헌이 거의 다 漢文으로 기록돼 있고, 우리 말의 사전 표제어의 70%가 漢字語로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서구문화가 로마子圈을 이루고 있듯이 동양문화는 漢字圈을 이루어 中國, 日本은 물론 동남아까지도 漢字, 漢文을 매개로 문화의 자연스런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문자의 본질로 보아도 한글은 소리를 적는 表音文字요, 漢字는 뜻을 나타내는 表意文字이므로 이 두가지의 적절한 절충은 가장 이상적인 문자운용이 된다. 文面의 뜻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충 사용으로 日本은 세계 제일의 讀書國이 되었고, 그것은 곧 경제적으로도 일등국이 되게 한 原因이 된 것이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뜻을 파악하는 일이다. 한글 專用을 주장한 어떤 분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한글로 쓴 신문의 사설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소리를 내서 읽을 수는 있겠으나 뜻까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로마字를 배운 중학교 1학년에게 몇가지 특수한 발음 원칙만 알려 주고 독일어를 읽으라면 곧잘 읽을 것이다. 그러나 뜻을 알 수는 없다. 漢字語를 한글로 표기할 때, 뜻이 문혀버려 이해가 안돼,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된다. 얼마 전에 TV에서 국민학교 퀴즈를 보았다. '분'자 밑에 빈칸 두개를 채우라는 문제였다. '비가 올 때 물이 양쪽으로 나누어 흐르는 고개를, 대관령(大關嶺)이라 하는 것처럼 하면?'하고 물었다. 전국에서 뿔뿔 올라온 국교 상급생들이 잠잠 무언이다. 分水嶺이란 말은 분명 교과서에서 배웠을 것인데, 한글로 '분수령'이라고 설명도 없이 덩어리로 배우니 이해가 될 리 없다. 따라서 소화가 될리 없고, 그냥 가물가물할 뿐이다. 이 한 예로도 1970년 이래의 순 한글 표기 교과서에 의한 국민학교 교육이 얼마나 허점을 짚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것이다. 시정이 시급하다.

漢字를 아는 사람에게는 中心語句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漢字로 表記하는 것이 文面의 입체화로 독서능률을 몇 배로 높일 수 있다. 제작의 편리에서, 또는 순 한글로 表記해야 잘 팔린다는 이유로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공부 안하는 독자 수준에 영합함보다는 독자를 이끌어 올리는 출판을 위해 文面의 입체화는 절대로 필요하다.

표지인물	2	책속에 묻힌 세월의 化石 가려내기 「韓國典籍印刷史」 퍼낸 千惠鳳교수
초점	4	합리적 개선의 물길 잡은 납본제도
저작구상	5	「포스트모더니즘」—김옥동
리뷰	6	오늘의 소련, 그 변화의 의미를 캔다 변모하는 소련사회의 이해를 돕는 책
서평	8	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박종기 錢存訓 「中國古代書史」—임동석
	9	혜릴 「전쟁의 기원」—전웅 심상필 「제3세계」—김미아
	10	김광웅 「한국의 선거정치학」—현종민 정운영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김수행
	11	블랑쇼 「文學의 空間」—고재정 윤대성 「윤대성회고집」—김미도
출판화제	12	출판사 도서목록 발행현황과 문제점 소책자 형태가 주류...서지사항 기재 충실해져야
연재기획	14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대한교과서 설립을 전후한 초창기 교과서업계
화제의 책	16	책을 통해 떠나는 인도로의 신비한 여로 인도기행 서적 세권을 중심으로
저자인터뷰	18	상여소리 찾아나선 輓歌채록의 '먼 길' 「한국민가집」 '호남·제주편' 낸 奇老乙씨
서점가순례	19	대구지역 서점대행회의 선두주자 '제일서적'
이 책 그 사람	20	「내가 자란 서울」 퍼낸 어효선씨 추리소설 「저린 손끝」의 작가 권경희씨
	21	골프시집 「파란 잔디 하얀 공」 낸 김수경교수 「할아버지의 부엌」 번역한 엄은옥씨
세계의 추천도서	22	스스로 찾아내는 추천도서 목록읽기—이중환 '뒷계단'을 밟아 '배경'을 찾는 감성
작품구상	23	장편 「꽃을 드니 미소짓다」—황충상
세계의 출판	24	체제의 혼란기에 싹튼 시편들·외
독자서평	26	채인선/김요안/강상진/이승미
	28	새로나온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백자안내/화제의 책/자료집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 (유대기)/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